

## 제 3 장 학술활동

### 1. 학술활동의 내용

#### ● 학술대회(추계학술대회)

본회는 1961년 12월에 창립되었으므로 처음 집회는 1962년 10월 12일 서울의대에서 뇌염에 대한 공개좌담회가 개최되었다. 이후 1962년 12월 18일 연세의대에서 제 1회 학술대회가 대한 미생물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으나, 1963년부터는 단독으로 개최되었다.

초창기에는 심포지움, 특별강연과 좌담회 등이 번갈아 열렸으나 1973년 제 12차 학술대회부터 심포지움이 정착되었다.

1983년 22차 학술대회부터는 26차 화학요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고 차수도 각각 붙이던 것을 1986년부터는 각각의 차수는 생략하고 년도만 붙여 학술대회를 열었다.

1990년 29차 학술대회부터는 University of London의 J.T. Smith가 처음으로 초청되어 학회 특별강연을 하였고 현재까지 외국의 저명한 교수들의 학회 특강이 매년 지속되고 있다.

1995년 이전까지는 11월 마지막 금요일 하루만 개최되었으나 1996년부터는 연제의 증가로 금요일과 토요일 2일간에 걸쳐 열리게 되었고, 1998년부터는 화학요법학회의 발전에 따라 감염학회 단독으로 개최되었다.

#### ● 학술대회(춘계학술대회)

춘계 학술대회는 대한의학협회 종합학술대회가 봄에 열리기 시작하던 1984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에 공동명의로 참여하고 있던 대한화학요법학회가 춘계학회를 주관하고 심포지움만 갖도록 하자는 제의에 따라 1997년까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 ● 저서 발간

1994년 논문집에 나오는 항생제의 약어가 통일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항생제 약

어 목록집을 발간하였다.

1995년에는 우선 1차로 1970년부터 1992년까지 국내 의학학회지와 의과대학 잡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감염병 논문 색인집을 발간하였다.

1997년에는 2차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색인집을 발간하였다.

2000년에는 정희영 명예회장이 1983년 집필한 ‘항생제의 길잡이’의 개정판을 발간하였고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1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여하는 동아제작상을 수상하였다.

### ● 국제 학술 교류

1996년 5월 춘계학술대회에 중국 전염병학회 명예회장인 田 庚善, 부회장 斯 崇文, 북경의대 미생물학 교수 方 亮이 참석하여 ‘중국 전염병의 개관’과 ‘Human IL-2 gene transfer & expression inhibits HBV and enhances cytotoxicity of P BMC’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이에 학회에서는 답방의 형식으로 ‘96년 11월 14-19일 중국 무한에서 열린 중국전염병학회에 회장단(박승철, 최강원, 강문원, 김준명, 이영석)이 참석하여 ‘한국에서의 바이러스성 간염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두 단체는 상호방문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간에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심포지움 형식의 학술교류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1996년 11월 신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 일본 감염증학회 회장인 Kyorin의대 Hiroyuki Kobayashi 교수를 초청하여 ‘Pathogenetic role of bacterial biofilms and its control, especially in airway biofilm disease’란 제목의 특별강연을 가졌다.

1997년 7월 중국 북경의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 한중의학 학술대회에 이호왕, 박승철, 최강원, 강문원, 김준명, 이평우, 우준희 등의 임원단이 참석하여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이란 주제로 중국 측 관련 학자들과 심포지움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Vaccine development of HFRS in Korea’ 외 7편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1997년 10월 일본 감염증학회 차기회장인 St. Marianna 의대의 Jingoro Shimada 교수가 학회를 방문하여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향후 일본과의 정기적인 학술교류에 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1997년 11월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개최된 제 4차 아세아 태평양 의학바이러스 학술대회(APCMV)에 최강원, 김준명, 이환중, 손영모, 김의중 등이 ‘HIV/AIDS’와 ‘Respiratory viruses’ 주제의 session을 맡아 진행하였다.

1999년 5월 일본감염증학회 학술대회에 박 승철 전 회장과 최 강원 회장이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으며, 향후 일본감염증학회와의 학술교류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 학술연구

1996년 폐렴에 대한 전향적 연구에 앞서 7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경험적 항균제 치료에 필요한 사항과 전향적 연구에서 보충해야 할 사항을 조사하였다. 이후 1997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보건복지부로부터 ‘성인 지역사회 폐렴의 원인 미생물에 대한 전향적 다기관 연구’라는 과제명으로 188,000,000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였다.

### ● 학술상 수여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학술활동을 장려하며,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8월 대한 감염학회 학술상을 제정 시행하였다.

1995년에는 이환종 교수가 ‘소아 하기도 감염증의 원인 및 이의 유행 양상’으로 수상하였다.

1996년에는 강문원 교수가 ‘신장이식환자에서 CMV 감염의 조기 검색을 위한 반정량적 중합효소 연쇄반응 및 면역세포화학적 방법의 이용’으로 수상하였다.

1997년에는 송기준 교수가 ‘1995년 및 1996년 국내에서 분리된 풍진 바이러스의 염기서열 및 통계 분석’으로 수상하였다.

1998년에는 김민자 교수가 ‘렙토스피라균종의 공통항원 heat shock protein 58의 클로닝, 과량 발현, 정제’로 수상하였다.

1999년에는 최정현 교수가 ‘내독소, cytokines, 대장균 자극에 의한 말초혈구의 apoptosis’로 수상하였다.

2000년에는 강진한 교수가 ‘국내에서 디프테리아의 연령별 면역 혈청학적 연구’로 수상하였다.

한편 감염학회 추천으로 1966년 전종휘교수께서 ‘급성전염병개관’으로 3.1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박승철 교수가 1997년 6월 10일 제 27회 지식영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전종휘 교수는 1999년 7월 14일 제 14 회 성곡학술문화상을 수상하였다.

### ● 대한내과학회 연구비 수혜

1991년부터 시행된 대한내과학회 연구비는 1998년 배현주 교수가 ‘*A. baumannii*의  $\beta$ -lactam항생제 내성기전’으로 500만원을 수혜하였다.

1999년에는 김준명 교수가 ‘Molecular diagnosis of bacterial and fungal infections in blood and body fluids using 16sRNA and 18sRNA direct amplification’으로 800만원을 수혜하였다.

### ● 관련 학회로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창립

한국소아감염병학회는 1993년 4월 29일 대한감염학회의 정회원 중 소아과학을 전공하는 회원들이 소아 감염병학에 관한 학술연구 및 정보 교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감염병학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결성하기로 하여 창립대회를 갖고 대한감염학회의 하나의 새로운 관련학회로 출발하였다. 초기에는 연구회 형식을 취하여 출발하였는데 명칭을 한국소아감염병연구회로 하였고,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로 하였다. 1993년 6월 17일에 한국소아감염병연구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초대 회장으로 순천향의대 소아과학교실 이상주 교수

님이 추대되었다. 이후 연구회는 춘, 추계 심포지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1994년 11월부터 “소아감염” 학회지를 발간하였고 현재까지 연간 2회씩 발간되고 있으며 1996년 6월부터 대한의학회로부터 준학회로 인준되어 현재와 같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현재 이 학회는 정회원 450명이 참여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한감염학회와 공동 주제를 갖고 비정기적인 공동학술대회 또는 심포지움을 주최하고 있어 본 학회와의 학술 및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 학회 사무실 개소

체계적인 학회활동과 회원들에 대해 원활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2001년 10월 12일 학회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학회 사무실의 개설로 회원 신상에 관한 변동 사항 관리, 학회 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관련학회 학술활동 정보 제공, 학술 평점 관리, 그리고 기타 학회 활동에 관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었다.

## 2. 연수강좌

### ● 월례 연수강좌

본 학회는 1988년부터 월례 연수강좌를 시작하였으나 정기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열리다가 1994년부터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모이는 것이 정례화되었다.

1997년 2월부터 감염학회 정기 연수강좌와 대한 화학요법학회 월례 연수강좌가 통합되어 개최되었다.

증례 토의는 이전의 월례 연수강좌에서도 흥미있는 증례가 있을 때마다 시행되었으나 1999년부터 강좌 1시간, 증례 토의 1시간의 형식으로 바뀌어, 한 병원에서 증례를 내고 타 병원에서 증례를 해결하는 CPC 형식의 토의가 시작되었다.

### ● 감염 연수강좌

월례 연수강좌가 주로 서울에 있는 감염학회 회원 및 전공의들이 주 대상이어서 감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서울 지역 이외의 개원의 및 전공의들에 대하여도 연수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4년부터 연수강좌를 지방에서도 개최하게 되었다.

1999년부터는 각 대학별로 시행되고 있던 연수강좌를 통합하여 감염학회 주관으로 1년에 두 차례씩 서울과 지방에서 각각 개최하게 되었다(1994년에는 3평점, 1997년부터 4평점, 2001년부터 6평점). 크게 기초이론, 임상증후군, 원인 미생물, hot topic의 네가지 주제로 강의 내용을 구성하여 4회의 연수강좌를 거쳐 감염학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내용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2001년 제5차 연수강좌 부터는 제1차 연수강좌의 강의 제목이 반복되면서 최근의 지식이 추가되었다.

### ● 내과학회 감염분과 연수강좌

1995년부터 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감염분과 연수교육과 연수강좌(3평점)를 시작하게 되었다.

## 월례 연수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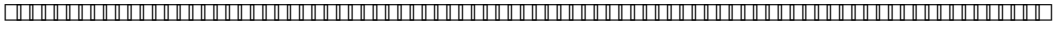
일 시	장 소	연 자	제 목
1988년 9월 23일	성모병원 성모병원	김 민 자 김 준 명	Laboratory diagnosis of leptospirosis 증례토의
1989년 4월 21일	성모병원		증례토의; 서울대 Legionnaires' disease
9월 22일	성모병원	손 영 모	CMV감염의 DNA진단
12월 7일	성모병원	김 의 중	Bactec 730을 이용한 혈액배양
1990년 6월 21일	강남성모병원	이 창 흥	Type C hepatitis
1991년 3월 21일	강남성모병원	김 유 겹	Virus 감염증의 laboratory diagnosis
4월 25일	강남성모병원	김 창 민	DNA hybridization과 PCR을 이용한 <i>L. monocytogenes</i> 의 조기진단
6월 13일	강남성모병원	오 성 희	증례토의(Tuberculosis of skull)
8월 23일	강남성모병원	류 지 소	불명열
1992년 1월 21일	강남성모병원	David J. Brigati	Recent advances in situ hybridization
2월 21일	강남성모병원	김 준 명	Cerebral malaria
3월 23일	강남성모병원	최 강 원	Aspergillus pneumonia with multiple infarction in a leukemic patient
4월 28일	강남성모병원	김 준 명	AIDS phobia
1993년 2월 22일	강남성모병원	김 민 자	Molecular pathogenesis of Legionnaires' disease
3월 22일	강남성모병원	김 준 명	Pseudomembranous colitis induced by cancer chemotherapy
4월 26일	강남성모병원	신 완 식	Typhlitis
6월 28일	강남성모병원	김 준 명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DS 참가보고
8월 30일	강남성모병원	우 준 희	Pathogenesis of TSS
9월 17일	강남성모병원	Ben E. De Pauw	Opportunistic fungal infections in immunocompromised patients

일 시	장 소	연 자	제 목
1994년 2월 28일	강남성모병원	우 준 희	Post KT multifungal infection
3월 14일	강남성모병원	장 인 진	Pharmacokinetic aspect of antibiotics
4월 1일	강남성모병원	Paul H. Edelstein	Laboratory diagnosis of legionellosis
6월 13일	강남성모병원	김 응	Fever of hepatitis
7월 4일	강남성모병원	차 성 호	Acute rheumatic fever
8월 1일	강남성모병원	김 민 자	FUO
9월 5일	강남성모병원	박 길 홍	Gene therapy for mucopolysaccharidosis 7 using adenoviral vector
12월 5일	강남성모병원	박 경 찬	Detection of human papilloma virus
1995년 3월 6일	강남성모병원		Pathogenesis of toxoplasmosis
4월 3일	강남성모병원		Pneumonia in HIV infected patient
4월 24일	강남성모병원		Molecular biology of EB virus
7월 10일	강남성모병원		<i>Vibrio vulnificus</i>
9월 4일	강남성모병원		Meningococcal infection, 의학통계학
1996년 2월 5일	서울중앙병원	김 양 수	Brain abscess
		박 경 찬	Detection of HPV infection
3월 4일	강남성모병원	유 진 홍	Infection in neutropenia
		김 선 영	Molecular biology of HIV
4월 1일	고려의대	김 민 자	HFRS with ARDS(중레토의)
		박 병 주	Pharmacoepidemiology
6월 3일	서울중앙병원	송 재 훈	Pneumococcal infection
		김 유 겹	Biological diagnosis of Enterovirus infection
7월 1일	서울대학교병원	이 환 중	Respiratory viral infection in children
		최 명 식	Molecular pathogenesis of Rickettsial infection
9월 2일	영동세브란스병원	손 영 모	Vaccine 문제점
		김 유 겹	결핵균의 분자역학
12월 9일	한미빌딩	김 의 중	Biology and diagnosis of Parvovirus infection
1997년 2월 3일	서울중앙병원	우 준 희	Viral pneumonia
		이 남 용	Detection of adenoviral infection
3월 3일	강남성모병원	최 정 현	Granulocyte transfusion
		김 태 규	Cellular immunotherapy of viral infection
4월 7일	고려의대	오 명 돈	Anti-HIV treatment
		김 상 덕	의학잡지의 SCI 등재를 위한 준비

일 시	장 소	연 자	제 목
6월 2일	삼성의료원	송 재 훈 권 오 정	Pneumococcal infection Cytokine and tuberculosis
7월 7일	서울대학병원	이 환 중 황 응 수	Respiratory viral infection in children Glycoprotein in CMV
9월 1일	영동세브란스병원	손 영 모 정 용 훈	Immunogenicity of HB vaccine Peripheral T cell tolerance
12월 1일	한미빌딩	김 양 수	Postantibiotic effect
1998년 2월 2일	강남성모병원	강 진 한 김 용 선	Diarrhea and GI infection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3월 2일	강남성모병원	김 범 준	계통수분석을 이용한 비정형 Mycobacterium 동정
4월 6일	강남성모병원	유 진 홍 조 명 환	Molecular typing in infectious diseases HIV 치료의 최근동향
5월 4일	강남성모병원	송 기 준 정 문 현	계통수 분석의 이해 Management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6월 1일	강남성모병원	김 우 주	Glycopeptide resistance of enterococci
7월 6일	강남성모병원	인 요 한	북한의료의 실태
9월 7일	강남성모병원	백 경 란	G-CSF가 호중구 기능에 미치는 영향
10월 14일	르네상스호텔	Stephen H. Zinner Lionel A. Mandell	Community Acquired Pneumonia
12월 7일	강남성모병원	오 명 돈	에이즈 감염에 대한 내성
12월 14일	한미빌딩	백 순 영	Gene therapy를 이용한 감염병의 치료
1999년 3월 8일	강남성모병원	이 복 권	1998년 국내에서 유행한 shigellosis
4월 12일	강남성모병원	강 희 일	새로운 cephalosporin의 개발현황
5월 3일	강남성모병원	김 지 희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현황
6월 7일	강남성모병원	최 현 일	Molecular mechanism of bacterial virulence gene expression
9월 6일	강남성모병원	박 용 호	국내가축에서VRE조사
2000년 3월 16일	강남성모병원	김 우 주	VRE
4월 3일	강남성모병원	정 문 현	Tsutsugamushi병의 치료
5월 1일	강남성모병원	이 경 원	Extended spectrum $\beta$ -lactamase
6월 5일	강남성모병원	김 미 나	VRSA
7월 3일	강남성모병원	김 양 수	Multiple antibiotic resistant locus



일 시	장 소	연 자	제 목
2001년 3월 5일	강남성모병원	오 성 희	최근 유행하는 홍역 증례토의
4월 9일	강남성모병원	배 현 주	국내분리 이질균의 항생제 내성 증례토의
5월 7일	강남성모병원	오 명 돈	광우병과 vCJD 증례토의
6월 4일	강남성모병원	유 진 흥	CMV의 새로운 진단기법과 adoptive immunotherapy 증례토의
7월 2일	강남성모병원	박 재 원	한국군에서의 말라리아 발생현황 증례토의
9월 3일	강남성모병원	신 영 균	Herpesvirus의 항바이러스제 내성 증례토의



## 내과학회 감염분과 연수강좌

일 시	장 소	연 자	제 목
1995년 10월 21일	쉐라톤호텔	김 응 신 완 식 김 민 자 우 준 희	주제 : 패혈증 패혈증의 기초적 병인론 패혈증의 병태생리 패혈증의 치료전략 패혈증의 실험적 치료
1996년 10월 26일	쉐라톤호텔	최 강 원 강 문 원 박 승 철 우 준 희 정 문 현 류 지 소	주제 : 항균제의 임상적 이용 Cephalosporin Aminoglycoside Quinolone Macrolide Penicillin, glycopeptide 예방적 항균요법
1997년 10월 25일	쉐라톤호텔	정 문 현 배 현 주 유 진 홍 김 양 수	주제 : 발열 Mechanism of fever Hyperthermia 중환자실 환자의 발열 불명열의 치료
1998년 10월 23일	쉐라톤호텔	우 준 희 김 우 주 송 재 훈 유 진 홍	주제 : 항생제 내성균 포도상구균(MRSA, VISA) 장구균(VRE) 폐구균(PRSP) Extended spectrum $\beta$ -lactamase (ESBL)
1999년 10월 22일	쉐라톤호텔	최 강 원 박 승 철 오 명 돈 정 문 현 강 문 원 류 지 소	주제 : 새로운 항생제 Cephalosporins Quinolones Macrolides Penicillins & Glycopeptides 새로 개발중인 항생제 예방적 항균요법

## 감염 연수강좌

일 시	장 소	연 자	제 목
1994년 6월 10일	인제의대	최 강 원 박 승 철 강 문 원 우 준 회	주제 : 새로 임상에 이용되는 항균제 Cephalosporin 제제 Quinolone 제제 Glycopeptide와 aminoglycoside Macrolide 제제
1995년 4월 17일	연세대학교	이 덕 형 신 광 훈 박 송 용 강 문 원 손 영 모 이 중 옥	주제 : 2000년대를 향한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과거, 현재, 미래 국내백신개발과 허가현황  국내백신 임상시험의 현황 예방접종 실행과 접종 부작용 특강 : 면역확대 사업의 세계적 현황 및 전망
1995년 6월 9일	충남대학교병원	박 승 철 최 강 원 김 준 명 이 환 중 강 문 원	주제 : AIDS의 임상과 관리 Introduction to AIDS 원인과 역학, 관리 증상과 치료 소아에서의 AIDS 의료인의 감염예방대책
1996년 4월 12일	제주의료원		주제 : AIDS 임상과 관리방안
1996년 10월 16일	중앙병원	최 강 원 김 양 수 오 성 희 우 준 회 강 문 원 정 문 현 김 은 옥 김 준 명 배 현 주 류 지 소	주제 : 일차진료에서 경험한 감염질환 불명열과 말라리아 뇌수막염 풍진과 발열성 홍반 감기·상기도 감염 폐염·기관기염 봉와직염·골수염 신우염·방광염 감염성 설사 신증후출혈열·쯔쯔가무시병·렙토스피라증 경부임파선염 및 임파선 결핵

일	시	장 소	연 자	제 목
1997년	4월 12일	계명대학교병원		주제 : AIDS 임상과 관리방안
1997년	4월 26일	삼성의료원		International Symposium on Antimicrobial Resistance
1997년	5월 11일	가톨릭의대		주제 : 다제내성균과 결핵
			최 강 원	MRSA
			우 준 희	VRE
			송 재 훈	PRSP
			유 진 홍	다제내성 그람음성균
			강 문 원	다제내성균에 대한 새로운 항균제
			안 철 민	결핵의 새로운 진단법
			송 정 섭	결핵의 치료원칙
			김 준 명	다제내성결핵의 치료
			류 지 소	폐외결핵
1997년	5월 15일	힐튼호텔	오 대 규	정부의 에이즈 관리정책-현황 및 전망
			최 강 원	우리나라 AIDS/HIV
			Micheal Stek	새로운 항 HIV 치료제-protease inhibitor
			오 명 돈	항 HIV요법의 in vitro model
			O'Brien	HIV viral load and progression of disease
			김 준 명	항 HIV 요법의 실제
1997년	9월 7일	세브란스병원		주제 :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는 감염증
			김 민 자	패혈증의 항생제 치료
			송 영 구	management of septic shock
			장 준	패혈증에 의한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최 규 현	패혈증에 의한 급성 신부전증
			송 재 훈	급성수막염
			강 문 원	감염성 심내막염
			최 성 규	Vibrio 패혈증
			신 완 식	괴사성 연조직 감염
1997년	9월 19일	전남대병원		주제 : AIDS 임상과 관리방안

일 시	장 소	연 자	제 목
1997년 10월 5일	서울중앙병원	류 지 소 김 은 옥 김 양 수 김 성 민 정 문 현 정 두 련 배 현 주 우 준 희	주제 : 증례중심의 감염질환 불명열로 발현한 폐외결핵 말라리아 감염성 심내막염 세균성 수막염 장티푸스 척추골수염 신증후출혈열 AIDS와 폐렴
1998년 4월 12일	연세대학교	이 경 원 손 영 모 용 태 순 신 종 희 김 민 자 우 준 희 오 명 돈 송 영 구	주제 : 감염질환의 새로운 진단과 치료 세균감염의 진단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 바이러스 감염의 진단 및 혈청학적 검사 원충, 기생충 감염의 진단 및 판정 진균감염의 진단 및 혈청학적 검사 발열질환에서의 감별진단 및 경험적 치료 항생제 과민반응시 대체요법 경구용 항생제의 합리적 사용 특수경로를 통한 항생제 투여
1998년 4월 24일	전남대병원	우 준 희 오 명 돈 최 강 원 강 문 원	주제 : 에이즈-최근의 발전들 에이즈의 역학 에이즈의 병인론 에이즈의 증세, 기회감염 의료행위 중 에이즈의 감염
1998년 5월 10일	가톨릭의대	강 진 한 이 환 중 문 화 식 김 상 채 송 재 훈 김 용 선 김 민 자 신 완 식 우 준 희 강 문 원 정 인 식	주제 : Emerging infectious disease <i>E.coli</i> O157 and <i>Listeria</i> Influenza(H5N1)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Atypical mycobacteria Malaria Prion disease Hantavirus pulmonary syndrome Human herpesvirus-6, 7, 8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ancomycin-intermediate resistant <i>S. aureus</i> <i>H. pylori</i>

일 시	장 소	연 자	제 목
1998년 9월 12일	전남대학교병원	우 준 희 오 명 돈 신 동 현 김 정 수 김 준 명 강 문 원	AIDS의 역학 AIDS의 발병기전 임상상 및 진단 소아의 에이즈 치료의 최신지견 의료행위중 HIV 감염 예방
1998년 11월 14일	서울대병원	최 강 원 오 명 돈 배 현 주 우 준 희 김 민 자 송 재 훈 정 문 현 김 성 민 신 완 식	주제 : 항균요법-이론과 실제 감수성 검사와 항균제의 선택 약리학에 근거한 항균제의 합리적인 용법, 용량 항균제 내성기전 새로운 항균제 : update 중추신경계 감염에서 항생제의 사용 지역사회 폐렴의 치료 요로감염증 피부연조직 감염증 Use of antimicrobials in neutropenic patient
1999년 3월 21일	가톨릭의대		
1999년 6월 13일	전남대의대	정 문 현 정 희 진 최 강 원 우 준 희 최 정 현 배 현 주 김 성 민 신 형 식	(기초이론편) $\beta$ -lactam계 항균제 Aminoglycoside 항균제 항균요법의 원칙 (임상증후군편) 호흡기감염과 항균요법 패혈증/패혈증속 (원인미생물편) 리케치아 질환 포도구균 감염증 (Hot Topic) <i>E. coli</i> O157:H7 infection
1999년 9월 12일	부산대학교		
1999년 10월 3일	가톨릭의대	이 혁 김 성 민 오 명 돈	(기초이론편) Quinolone계 항균제 Glycopeptide계 항균제 약리학에 근거한 항균제의 합리적인 사용

일	시	장 소	연 자	제 목
				(임상증후군편)
			백 경 란	요로감염증의 진단 및 치료
			신 동 현	설사질환
			신 완 식	호중구 감소증 환자의 항균요법
				(원인미생물편)
			김 양 리	말라리아
			우 준 희	렙토스피라증
				(Hot Topic)
			김 우 주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2000년 3월 26일		가톨릭의대		
2000년 5월 14일		전북대학교		
				(기초이론편)
			신 형 식	항생제-macrolide
			백 경 란	항생제-항진균제
			이 경 원	세균검사결과에 따른 치료항균제의 선택
				(증후군편)
			박 성 호	중추신경계 감염증
			김 준 명	에이즈의 임상 및 치료
				(원인균편)
			정 희 진	진균감염증
			최 정 현	헤르페스 감염증
				(Hot Topic 편)
			김 민 자	식품매개 감염증
2001년 3월 25일		부산대학교		
2001년 4월 15일		가톨릭의대		
				(기초이론편)
			송 영 구	항바이러스제
			최 정 현	내과영역에서의 예방적 항균요법
				(임상증후군편)
			김 성 민	불명열
			백 경 란	심혈관계 감염증의 진단 및 치료
			정 문 현	Soft tissue infections
				(원인미생물편)
			김 우 주	인플루엔자
			오 명 돈	HIV 감염증
				(Hot topic편)
			김 용 선	프리온 질환

일 시	장 소	연 자	제 목
2001년 9월 16일	전북대학교		
2001년 10월 14일	가톨릭의대		(기초이론편)
		최 강 원	항생제 사용원칙
		정 문 현	$\beta$ -lactam 항생제
		정 희 진	Aminoglycoside
			(임상증후군편)
		송 영 구	폐렴의 치료
		최 정 현	패혈증
			(원인미생물편)
		배 현 주	리켓치아
		신 형 식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Hot topic편)
		오 성 희	최근 유행하는 홍역



### 3. 학 회 지

본 학회도 다른 학회와 마찬가지로 1961년 창립이후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여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 온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드디어 1969년 어려움을 무릅쓰고 창간호가 만들어지긴 하였지만 원고의 부족, 경제적 문제 등 애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당시 전종휘 회장이 쓰신 '학회지 발간에 부쳐서'와 정희영 교수의 'C생'이란 이름으로 쓰신 창간호 편집 후기를 보아도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이다. 그러나 감염학회지를 살려야 한다는 간행위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어려운 시기에 귀한 원저를 보내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 해도 빠짐 없이 간행되었으며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창간 당시 년 1회 발간되던 학회지는 답보상태를 계속하다가 15년이 지난 1982년 제 16 권부터 년 2회로 발간 횟수가 증가되었고, 1987년 제 19 권부터는 년 4회로 증가되었다. 1994년 김민자 교수가 새로 신설된 간행부장을 맡으면서 편집체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창간호부터 사용된 투고규정을 새로 개정하고, ISSN에 등록함으로써 여러 문헌 검색 책자에서의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997년 제 29 권부터는 년 6회로 두 달마다 간행하여 학회지 평가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8년부터는 '편집인에게로의 편지'가 처음 신설되었고, 투고 규정을 '논문제출 및 작성에 관한 지시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저자 확인 사항 기록양식을 만들었다. 1999년부터는 저자와 색인단어 및 총목차를 게재하여 알아보기 쉽게 함으로써 명실 상부한 학회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학회 표지는 1969년 창간호 이후 1997년까지 큰 변화없이 사용되다가(1971년 영문표기만 'Journal of Korean Infectious Diseases'에서 'Korean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로 바뀜) 1998년 현재의 모습으로 새로운 단장을 하였다.

2000년까지 발간된 학회지는 총 32권 8,158쪽으로 이를 통하여 심포지움 내용 117편과 종설 99편, 원저 571편이 발표되었다(표 참조). 1984년 년 2회로 중간되면서 이전에 5-10편에 불과하던 원저의 숫자가 20편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매년 40-50편씩 발표되고 있으며, 증례의 숫자도 30편에 이르고 있어 초창기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하겠다.

학회의 편집인은 초창기에는 강석영, 최평화, 박승함, 정희영 교수님이 수고하여 주시었고, 1994년부터 4년간 새로 신설된 간행부장을 김민자 교수가 맡아 큰 공헌을 하였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는 정문현 교수가 편집 책임을 맡고 강재승, 강진한, 김동수, 김우주, 김의중, 송기준, 송재훈, 신완식, 오명돈, 오성희, 우준희, 이경원, 이규만, 이환중, 이창규, 황우승, 최정아 등이 간행위원으로 수고하고 있다.

국가에서의 보조는 창간호부터 과학기술처에서 간행비의 일부를 보조받아 오다가 1974년에는 그마저 중단되었으나, 1983년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보조가 시작되었고 1993년부터는 한

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도 시작되었다.

출판은 1969년과 1970년에는 최신의학사, 197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문출판사(1971~1978; 광문인쇄사, 1979~1999; 의학문화사, 2000~현재; 광문출판사)에서 맡고 있다.

대한감염학회 홈-페이지는 1998년도에 대한의학회 산하 정학회 전산정보화사업에 참여하면서 개설되었다. 이 당시 본 학회의 홈-페이지는 간행부에서 관장하여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그 사이 대한의학회 전산사업에 많은 변화가 있어 실질적인 기능이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회원들간의 학술적 교류와 학회의 현황을 알리는 홍보기능 및 새로운 전문 지식 전파 등에 많은 기여가 있었다. 현재는 최초의 홈-페이지 주소인 www.ksid.or.kr 주소에서 www.infectionkorea.org 으로 전환되었고 공지사항, 새로운 감염학 관련 뉴스, 증례, 항균제 소식, 관련학회 활동 소개 및 연결, 국외 관련 정보 사이트 연결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본 학회의 학술지인 “감염”지에 실린 논문을 이 홈-페이지에 올려 회원들이 용이하게 활용토록 하였다. 이러한 전산정보 활동은 현재까지는 간행부에서 보이지 않는 헌신적 수고로 지탱하고 있으나 앞으로 별도의 부서에서 관장할 예정이다.

### 학회지 발간에 부쳐서

전 종 회

대한감염학회가 1961년 11월 11일 창설되어 만 8년 만에 학회지를 우선 연간이나마 발간케 되어 마음이 흥가분함을 금할 수 없다.

창립하여 양년간을 임명재 박사님께서 회를 지휘하여 이끌어 나가시다가 3년째부터 만 5년간을 능력없는 제가 회를 대표하여 일을 맡아보다보니 뚜렷한 발전이 없어 이제야 겨우 회지를 마련케 되었다는 자책감이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음을 숨길 수 없다.

다행히도 실무를 담당하신 여러 위원님과 적지 않은 회원들의 성의로서 해마다 학술대회를 열 수 있었고, 시기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강연이나 심포지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기쁜 일임에 틀림없었으며 대한감염학회의 창립취지나 사명의 일부를 다하여 회 존재의 의의를 살릴 수 있었다고 믿어진다.

본회 성격상 의학의 여러 전공분야들의 횡적인 유대를 가지고 협동하여 토론의 광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참으로 뜻있는 일이었으며 기리 간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창립후 7년간에 걸쳐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제라던지 특별강연제목, 심포지움의 제목들은 단적으로 이 나라의 감염병의 역사와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고 보겠다. 그 본보기로 그 동안 우리학회에서 다룬 특별강연으로서 (1) 콜레라의 임상 (2) Enterovirus infection(장 바이러스 감염증) (3) 유행성출혈열 (4) Vibriosis(비브리오증) (5)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들이 있고, 심포지움의 제목들로는 (1) 장티푸스의 한국적인 과제 (2) 열대의학(동남아시아의 지방병) (3) 식중독 (4) 매독 (5) 콜레라 (6) 장티푸스 따위들인데 선뜻 우리들의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가 이해될 정도이다.

본회의 창립부터 관여하였고 오랜동안 일하느라고 힘썼으나, 우리가 처하여 있는 여건이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허용하여 줄 것 같지도 않아서, 속도가 더디기는 하나 차근차근히 이 회의 발전을 꾀할수 밖에는 없다고는 하겠으나, 좀 의욕적이고 활동적인 새 얼굴이 나와서 이 회를 끌고 나가야 하겠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다.

창간호가 단순히 과거의 비망록적인 기록으로 엮어졌으나 다음 호부터는 학회지다운 권위있는 연구업적들이 실려지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 학회지 게재 논문 현황

연 도	간행횟수	게재 논문수				쪽 수
		종 설	원 저	증 례	심포지움	
1969	1	1	4			90
1970	1	3	7			67
1971	1	5	9			95
1972	1	3	4			85
1973	1	3	7			83
1974	1	7	5			108
1975	1	5	5			77
1976	1	4	3		5	93
1977	1	7	1		3	83
1978	1	1	2		5	49
1979	1	5	1		4	61
1980	1	3	7		4	125
1981	1	6	6		3	123
1982	1	1	10		3	100
1983	1	4	5		3	106
1984	2		7			116
1985	2	4	15		4	206
1986	2	3	17	3	4	192
1987	4	2	21	3	8	288
1988	4	4	24	7		337
1989	4		24	10	7	342
1990	4	5	19	9	6	270
1991	4		20	12	5	306
1992	4	1	25	9	6	342
1993	4	2	29	18	5	426
1994	4	3	29	13		456
1995	6	5	46	16	11	653
1996	6	4	39	20	6	630
1997	6	2	41	25	5	595
1998	6	3	58	26	5	592
1999	6	1	36	31	11	561
2000	6	2	45	26	4	501
총 계	89	99	571	228	117	8,158

## 초창기 투고 규정

- ① 원고의 종류는 원저, 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 등으로 한다.
- ② 타지(誌)에 이미 게재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게재하지 않으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 ③ 원저 또는 임상 및 증례보고에 있어서 국문 원고에는 영어(英)초록을, 영어 원고에는 국문 초록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국문은 200자 원고 용지에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여 횡서하여야 한다.
- ⑤ 구문(歐文)은 타자하거나 인쇄체로 쓰되, 대소 문자의 구별은 정확히 하여야 한다.
- ⑥ 원고는 국문으로 써야하고 번역이 곤란한 때에만 괄호안에 한문을 쓸 수 있다.
- ⑦ 인명, 지명, 그 밖에 고유명사는 그 원자(原字)를, 숫자는 Arabia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⑧ 그림이나 표는 흑색 잉크로 정밀하고 간결하게 만든다.
- ⑨ 국문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문제목이 12단어가 넘을 때에는 각 면에 marginal notes로 기재할 요약제목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 ⑩ 참고문헌은 원고 말미에 인용순서대로 기재하고 본문에는 「어깨번호」를 붙이되 다음 양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단행본 - 저자명 : 도서명, 판수, 발행지, 발행년.  
 잡 지 - 저자명 : 발행년, 제목, 잡지명, 권수, 면수.
- ⑪ 원저 또는 임상 및 증례보고에 있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안료 및 제판비와 그 밖의 특수인쇄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실비를 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⑫ 원고 중 필요할 때에는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를 편집방침에 따라 실무자가 이를 고칠수 있다.
- ⑬ 원고의 게재여부는 본회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그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 현 논문제출 및 작성에 대한 지시사항

1998년 1월 개정

### 편집정책

감염 잡지는 대한감염학회의 정기간행물로서 미생물과 감염질환의 실험, 임상 또는 역학에 관련된 연구보고들을 발행한다.

#### 1. 일차 및 중복발표

다른 잡지에 이미 인쇄되어 발표되었거나, 원고로 제출되었거나 또는 인쇄가 수락된 원고는 본 잡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본 지에 게재된 것을 임의로 타지에 게재 할 수 없다. 학술대회 논문집(Proceeding)의 형태로 전문이 인쇄되지 않은 학술대회 발표 등의 게재는 제한하지 않으나 이러한 원고를 제출할 경우 저자는 편집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논문의 기제출 사항, 기인쇄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중복발표는 언어가 다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1) 관련된 두 잡지의 편집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일차 발표된 논문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전혀 다른 독자를 위하여 발표되어야 하며, 단순히 번역되는 것이 아니고 간단히 줄여쓰는 것이 좋고 일차 발표의 자료와 결론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논문의 표지에 각주로 일차 발표된 논문과 같은 내용을 지역 독자를 위하여 중복발표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이를 독자, 상호심사 위원 및 이차 인용잡지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예를들면 “이 논문은 일차로 ○○○○잡지 ××년도, ○○권 ××면에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한 중복발표임”이다.

만일, 동일 저자에 의해 본 잡지와 다른 잡지에 제출된 원고 사이에 중복이 있다는 것을 보일 때 편집위원회는 중복의 문제에 대해 교신저자에게 사실을 문의하며 그 반응에 근거하여 원고의 게재를 고려할 것인지, 원고 수정을 요구할 것인지 혹은 원고를 거절할 것인지 선택한다. 원고수정을 요구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저자에게 제공되며, 원고가 거절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에 본지에 게재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는 행동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일 본 잡지에 게재된 원고가 다른 잡지에 중복발행된 사실이 발견되면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공고한다.

#### 2. 원고의 심사 및 게재결정

원저와 증례보고를 포함한 단신(Concise communication)과 종설 등은 상호심사(Peer review)에 의해 수정보완 과정을 거친 후, 그리고 편집자에게로 편지(Letters to the editor)는 편집위원들에 의해 재검토된 후 출판을 위해 채택된다. 원고는 각 분야별로 편집위원회의 주관하에 게재가능여부의 결정, 상호심사 의뢰, 저자수정 의뢰가 이루어지며, 저자수정은 상호심사 결과와 본 잡지

의 투고양식(벤쿠버 양식)의 준수여부에 따라 의뢰된다. 저자는 수정회신시에 수정된 원고와 내용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리거나 2회의 심사로도 게재가능한 논문으로 수정보완되지 못하면 일단 게재불가로 처리되며 이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다른 한 분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두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판결을 내린다. 게재불가로 판정된 원고의 원본과 사진 1부는 저자에게 반환된다. 채택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게재한다. 원저 또는 단신 형태의 원고의 게재에 있어서 소정의 게재료를 받는다. 도안료 및 제판비와 그 밖의 특수 인쇄를 필요로 할 때에도 그 실비를 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편집인은 연구내용의 명료성, 표현의 정확성을 위하여 그리고 문법 등을 교정하는 권리를 유보하며 저자들은 교정 과정에서 이 변화들을 재검토 할 수 있다.

### ※ 원고 제출

본 잡지의 편집정책 및 투고양식을 고려하여 원고를 작성한 후 완성된 원고 3부(원본 1부, 복사본 2부), 저자확인사항 1부를 작성하여 함께 아래의 주소로 제출한다. 사진이 있는 경우 별도의 봉투에 넣는다. 편집위원회는 도착된 원고에 대하여 논문접수번호와 논문내용을 기재한 논문접수증을 교신저자에게 발부한다.

원고제출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감염내과(☎400-711)

대한감염학회 간행위원장 정문현

Tel : (032)890-2202, Fax : (032)890-6578

E-mail : cutebird@chollian.net

### ※ 원고의 부류

#### 1. 원저(Original articles)

감염질환의 임상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임상적 또는 실험적 연구나 기초 의학 지식의 향상에 관한 연구로서 길이제한은 없으나 가급적이면 본문, 표(table) 그리고 그림(figure)들은 최소한도로 제한하여 연구내용이 명백하고 간결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서술적이거나 또는 기법, 방법론적인 원고 등은 단신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 2. 단신(Concise communications)

새로운 발달 혹은 방법적인 면을 제시하거나, 또는 원저의 한가지 연구보다 더 세분화된 연구를 제시하는 간결한 연구결과 또는 단수 혹은 소수의 증례보고 등이 포함된다. 작성형태는 원저와 동일하나, 초록을 포함하여 총 2000자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표나 그림 등은 2개 이내, 참고문헌은 15개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증례보고는 6,000자 이내로 작성하며 1) 제목, 저자

(소속, 성명), 각주, 2) 영문초록(150단어 이내) 및 색인용어(3 내지 4개), 3) 서론, 4) 증례, 5) 고찰, 6) 요약, 7) 참고문헌(15개 이내), 8) 표, 9) 그림의 순서로 배열한다.

### 3. 편집인에게로 편지(Letters to the editor)

본 잡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토론, 의견을 기술한 서신이거나, 임상적 가치 혹은 특이한 관찰에 관한 서신으로 원고 작성법에 따라 준비하여 원본 1부와 내용이 저장된 디스켓을 제출하여야 한다. 총 750자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한 개의 삽입(표나 그림), 그리고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제한하며 감사의 글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 4. 논평(Editorials)

본 잡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분야의 제한없이 특정부분의 연구들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기술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편집위원회에 의해서 의뢰되어지나 청탁되지 않은 논평도 게재가 고려되어질 수 있다.

### 5. 종설(Review articles)

감염질환의 기초지식이나 임상적인 면을 다루는 원고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지고, 편집위원회에 의해 요청되어질 수 있다. 제출된 논문은 상호심사를 통하여 채택되어진다.

### 6. 부록(Supplements)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학술대회의 심포지움과 초록집 등은 본 잡지의 부록으로 출판되어질 수 있다. 주제의 적합성, 프로그램의 조직과 제작에 관한 문의는 편집위원장에게 서신으로 행해져야 한다.

## 투고양식

원고의 작성시에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원고는 흰색 A4 용지에 각 끝에서 25mm 이상의 여백을 두고 한 쪽 면만 타자 또는 인쇄한다. 표지부터 그림 설명까지 모든 원고를 두 줄 간격(double space)으로 인쇄한다. 원고는 제목을 포함하는 표지, 영문초록, 본문, 요약, 감사문, 참고문헌, 그림 설명(Figure legends), 표와 그림 또는 사진의 순서로 편집하고, 각 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록한다. 원고의 각 부분은 새 면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국문 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에는 국문초록을 각각 첨부한다. 국문원고에서 학술용어는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써야 하고 1992년 대한의학협회 발행 의학용어집에 수록된 것을 사용하며, 번역이 곤란한 특수 의학용어 등은 영문으로 쓸 수 있다. 영문약자를 사용할 때는 영문초록, 본문, 국문요약 각 항에서 첫 번째 사용할 때에 단어전체를 표기하고 약자를 제시한다 단, 논문제목에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1. 표지(Title page)

표지에는 1) 간단하고 적절한 논문의 제목, 2) 각 저자의 성명과 최고 학위 및 소속기관, 3) 연구가 진행된 학과 또는 연구소명, 4) 원고와 관련된 연락 책임이 있는 저자명 및 주소(우편번호,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6) 연구비 지원, 7) 국문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문제목이 40자가 넘을 때는(자 간격 포함) 논문의 각면에 기재할 간격을 포함한 40자 이내의 단축 제목(Running title)을 적는다.

### 2. 저자(Authorship)

모든 저자는 저작자로서 동의하고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공동저자의 경우 그 순서는 함께 결정해야 한다. 모든 저자가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사회에 책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 집단 저자(corporate or collective authors)의 경우에는 이 논문에 책임이 있는 저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그 외에 기여한 사람의 이름은 별도로 감사문에 기재한다. 편집인은 저자의 역할을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 영문초록 및 중심단어(Abstract and Key words)

영문초록은 250단어 이내로 1) Background, 2) Methods, 3) Results, 4) Conclusion의 4항목으로 규정된 형식을 사용한다. 중심용어는 3내지 5개를 영문초록 다음에 첨부하며, Index Medicus에서 정한 의학주제용어(Medical subject headings, MeSH) 단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합한 용어가 없을 경우에는 저자가 적절한 단어를 찾아 사용한다.

### 4. 본문(Text)

대부분의 관찰과 실험을 한 논문의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로 구성된다. 내용이 복잡한 긴 논문은 각 부분에 소제목을 붙여서 알기 쉽게 기록할 수 있다.

**서론** : 이 논문의 목적을 기술한다. 이 연구의 배경과 원리를 요약하고 참고문헌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제한한다. 관련된 주제를 광범위하게 재론하거나 종설을 쓰듯이 하지 말고, 발표할 결과나 결론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재료 및 방법** : 관찰하거나 실험에 사용한 재료를 기술하는데 여기에서는 환자, 실험동물 또는 대조군 등을 명백하게 제시한다. 방법을 다른 사람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적고 기자재의 경우 이름과 괄호 안에 제작회사 및 주소를 적는다. 통계처리를 포함하여 이미 잘 알려진 방법은 참고문헌을 제시하고, 아직 생소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참고문헌과 함께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새로운 방법이나 기존의 방법을 변형하여 시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하게 적고 그러한 시도의 이유와 장단점을 함께 제시한다. 사용한 시약은 이름, 상품명, 용량, 사용방법을 기재한다.

**윤리성(Ethics)** :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의 경우 반드시 설명된 동의서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환자의 이름, 이름의 첫자, 병록번호, 기타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은 실지 않는다.



**통 계**: 사용한 통계 방법을 가능한한 자세하게 기술하여 독자가 논문에 제시한 자료를 직접 통계 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검증 결과를 정량화하고 계측의 신뢰구간도 함께 표시한다. 한 가설의 통계 검증 결과를 p 값을 제시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도록 한다. 실험 대상의 가용성을 논하고 임의 선정의 과정을 상세하게 적는다. 실험이나 관찰의 무작위 과정의 성패에 관해서도 기록하며 관찰 횟수도 밝혀야 한다. 관찰한 것 중에서 중도 탈락한 내용도 기록하고 연구의 기획이나 통계에 관한 문헌을 자세하게 공개하며 사용한 컴퓨터의 프로그램도 제시한다. 결과에 제시한 실험자료를 처리한 통계방법을 명시한다. 표보다도 그래프가 유리할 경우가 많으며 표와 그래프로 중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통계학적인 용어, 약어 및 부호를 명백하게 제시한다.

**결 과**: 관찰 결과를 논리적 순서로 기술하며 본문과 맞추어 표와 그림을 사용하는데, 도표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본문에서 중복하여 나열하지 말고 중요한 결과만 요약하여 적는다.

**고 찰**: 연구의 결과 중에서 중요하거나 새로운 소견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결론을 기술한다. 서론과 결과에서 기록한 것을 중복하여 거론하지 않는다. 연구결과의 적용범위나 해석상의 한계, 향후 연구에서의 활용성 등을 기술한다. 또한 관계된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 고찰하고 이 연구의 목적과 결론을 상호 연계시킨다. 이때에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결론이나 어떠한 근거 없는 주장도 삼가야 한다. 아직 완결되지 않은 연구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인용하지 말아야 한다. 얻은 자료로 주장 가능한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고 이를 확인하는 적절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5. 요약

본문 뒤에 위치하며 영문초록과 같은 형식으로 1) 목적, 2) 방법, 3) 결과, 4) 결론으로 구성되며 1,000자 이내로 작성한다.

## 6. 감사문(Acknowledgement)

감사의 글을 본문의 끝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넣을 수 있다. 1) 저자에 들어가기에는 다소 부족한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한 감사 표현, 2) 단순한 기술적인 보조, 3) 재정적인 또는 재료의 보조에 대한 감사 표현 등에 대한 기록을 한다.

## 7. 참고문헌(References)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본문, 표, 그림 모두에서 인용하는 문구 말미에 어깨번호로 기재한다. 표나 그림에서만 인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표가 본문에 삽입되는 부위에 해당하는 순서를 매긴다. 참고문헌의 구체적인 형식은 미국립의학도서관의 Index Medicus가 권장하는 양식을 따른다. 이 때에 각 논문이 발표된 잡지의 이름을 역시 Index Medicus에서 사용하는 약어로 표기함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매년 1월호에 별책 부록으로 발간되는 인용잡지 목록(List of Journals Indexed Medicus)를 참조하면 된다. 되도록이면 참고문헌으로 초록을 인용

하거나 “미발표자료(unpublished observations)”, “개인적인 지견(personal communication)” 등을 인용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게재가 확정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는 잡지의 이름을 쓰고 “인쇄중(in press)”으로 명기한다. 원고를 제출하고 아직 게재가 미정인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미발표자료(unpublished observations)”로 한다. 인용문헌은 저자가 반드시 원 논문을 찾아 읽어야 한다. 공저인 경우에는 국문의 경우 모든 저자명을 기입하고, 영문의 경우 6명 이상일때 경우에는 6명 까지 기록한 후 “et al.”로 끝맺는다. 영문 성명은 Last Name을 앞으로 내고 그외는 initial만 표시한다.

#### ※ 참고문헌 예시

1) 잡지 : 저자명 : 제목, 잡지명, 권수, 면수, 발행년

국문; 백경란, 신형식, 배현주, 정문현, 오명돈, 송영욱 : 우리나라 쯔쯔가무시병의 임상상. 일선 의료기관과 대학병원에서 본 임상상의 비교. 감염 23:155-159, 1991

영문; Berman SJ, Kundin WD : *Scrub typhus in south Vietnam. Ann Intern Med* 79:26-28, 1973

2) 단행본 : 저자명 : 도서명, 판, 면수, 발행지, 발행사, 발행년

Seah AI, Hornick RB :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s 2nd ed. P1094, New York, Wiley Medcal, 1985*

3) 문헌중에 기재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Brain MC : *Anemia due to Progenitor failure, In : Qyngarrden JB, Smith LH, eds. Cecil textbook of medicine. 16th ed. p 834, Philadelphia, WB Saunders Co., 1980*

#### 8. 표(Tables)

표는 매번 새 지면에 두 줄 간격으로 인쇄하며, 표는 반드시 본문에서 인용되어야 하며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부가한다. 표의 제목은 상단에 표시하며, 표준화되지 않은 약어는 표 하단에 설명을 첨부한다. 제목에 없는 부연설명을 표 밑에 각 주로 삽입할 수 있다. 또한 규격화되지 않은 단축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주를 사용할 때에는 \*, †, ‡, §, ||, ¶, \*\*, †† 등의 순서대로 사용한다. 통계 수치를 제시할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 표준오차 등을 함께 밝힌다. 만약 다른 발표된 자료 또는 미발표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사문에 명시되어야 한다.

#### 9. 그림 또는 사진

그림 또는 사진은 각 3매씩 완전하게 준비하여 제출한다. 사진은 양질이어야 하고 판에 붙이지 않은 인화된 사진으로 127×173mm(5×7 in) 가 보통이나 203×254 mm(8×10 in)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한 글자, 숫자 및 부호 등을 나중에 축소하여 인쇄하더라도 잘 보이도록 감안하여

진하고 명료하게 삽입한다.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그림 자체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로 그림설명란에 준비한다. 각 그림의 뒷면에 번호, 저자명 및 그림의 방향을 지정하는 정보를 붙인다. 그림의 뒷면에 직접 쓰거나 표시하거나 크립으로 집어서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림 원본을 접거나 딱딱한 판에 붙이지 않는다. 현미경 사진은 축척용 자를 삽입해야 한다. 사진에 첨가되는 글자, 표시, 화살표 등은 배경과 잘 구분되어야 한다. 그림의 번호도 본문에 인용되는 순서대로 차례로 매겨져야 한다. 본문 중에 그림의 내용을 인용할때 Fig.로 표시한다. 이미 발표된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원전을 밝히고 저작권자의 사용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완전 공개가 허용된 문서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저자나 인쇄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천역색 그림을 제출할 때에는 필름, 슬라이드 또는 사진 중 어느 것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한다. 그림이 여러 장일 때에는 각 그림의 배치와 안내도를 첨부한다.

#### 10. 그림설명(Figure Legends)

그림에 삽입한 부호, 화살표, 숫자, 글자 등은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한다. 현미경 사진의 경우 내부의 자를 설명하고 염색법을 명시한다.

#### 11. 단위사용(Use of Measurements)

길이, 높이, 무게, 용적 등은 모두 미터법 단위 또는 그 백분 또는 천분 단위를 사용한다(미터, 그람, 리터 등). 온도는 섭씨 도로, 혈압은 수은기 등 높이 mm 단위로 쓴다. 혈액학적인 수치와 임상검사상의 검사치는 모두 국제단위(International System of Unit, SI)로 통일한다. 편집인이 저자에게 인쇄 전에 다른 단위로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 12. 단축용어 및 부호(Abbreviations and Symbols)

표준화된 약어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목과 초록에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표준화된 단위의 표식이 아닌 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본문에 처음 약어를 사용하기 전에 완전한 단어를 소개해야 한다.

미생물 명칭은 각 논문에서 처음 표기시에는 전 이름을 풀어서 표기하고(예: *Escherichia coli*), 그 이후부터는 genus명을 명하여 표시한다(예: *E. coli*). 단, genus 명을 약하여 표기시 다른 균명과 혼동이 있으면 약하지 않는다. 학명은 항상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그러나 학명이 아닌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기하지 않는다. 단어에 밑줄을 그으므로서 이탤릭체로 표기함을 대신할 수 있다. 그 외에 genus, species, 유전자 등의 이름, in vivo, in vitro, in situ, et al 등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